



'2018 상반기 전국 스포츠클럽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A' 등급으로 선정된 전북스포츠클럽 사진.

'한국형 스포츠클럽' 선구자 역할 특독

도내 스포츠클럽 4곳 최우수등급 선정

정부가 '한국형 스포츠클럽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2018 상반기 전국 스포츠클럽 성과평가'에서 도내 4개 클럽이 최우수등급인 'A' 등급으로 선정

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체육의 선순환 구조 확립과 우수선수 발굴·육성의 다변화 등을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 전국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성과평가는 도내 스포츠클럽 5

개(거점 1개·지역 4개)를 포함한 전국 53개 클럽을 대상으로 성과부분과 투명성(행정·회계·규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이뤄졌다.

그 결과 전북스포츠클럽과 군산스포츠클럽, 완주스포츠클럽, 남원거점스포츠클럽 등 도내 4개 클럽이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전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클럽들

이 선진국형 체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나 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포츠클럽은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전문체육을 연계하는 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든 세대가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감성 중심의 대중클럽이다.

/장은성 기자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콘서트'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음악학과 콜라보 공연

전주대는 오는 7일 전주 문화공간 이룸 아트홀에서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한다.

300여 년 전 활동했던 바흐, 베토벤, 쇼팽 등 천재 작곡가들이 살았던 정치, 경제, 혁명, 전쟁 등의 역사를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 시대의 클래식을 연주한다.



이를 위해 다소 이질적일 수 있는 두 학과,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음악학과가 콜라보를 진행한다.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정욱 교수가 세계사를 설명한 뒤 전주대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의 음악사 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클래식 연주가 이어진다.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는 "역사와 음악을 접목해서 관객들이 쉽고 재밌게 역사와 음악에 다

가갈 수 있도록 이번 콘서트를 준비했다"라며, "클래식이 어울리는 가을밤에 편안하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관람 신청 및 문의는 음악학과(063-220-2979)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미래교사 양성 위해 발벗고 나선다

전북대 사범대, 교육발전 위해 교육청과 세미나

혁신적 교육방안 탐색·지역 공교육 변화 모색 자리

전북대학교 사범대학(학장 권인탁)이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 교육청과 사범대학간 협력을 통해 변화하는 중등교육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교사 양성을 위해 관·학 정례 조인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교원양성기관과 현장이 연계해 혁신적 교육 방안을 탐색하고 교육연구 및 전문가의 상호 발전적 견인을 통해 지역 공교육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인탁 사범대학장은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전북 중·고등학교 현장에 대한 교내 교직이수자들의 이해력 증진과 더불어 앞으로 전라북도교육청과 사범대학간의 미래지향적 교사 양성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오는 7일 오후 3시 전북대 사범대학로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학교 폭력 예방 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합격률 전국 1위

관련 학과 중 22년째 최고 성적

전주대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이경재 교수)는 제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13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 졸업생 이승규, 김지훈 씨와 금융보험학과 4학년 김선환, 이진영, 박재정, 이민우, 서준원, 김민수, 정철진, 장희수, 김혜인 학생이 합격했고, 3학년인 김용욱, 양준혁 학생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작년보다 2명 많은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보험 관련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22

년 연속 보유하고 있다.

학과 내에 교수를 중심으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해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도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금융보험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고,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한다. 또한금융보험 관련 외부 강사들의 특강도 했다.

금융보험학과 학과장 이경재 교수는 "올해도 학과의 전폭적인 지지와 학생들이 교수와 선배를 믿고 잘 따라와 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학생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학교장 직무연수 실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2일 이틀간 전주 N타워 컨벤션에서 2018학년도 어울림 프로그램 이해 제고를 위한 학교장 직무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자기존중감, 감정 조절, 학교폭력 인식·대처 등 6개 핵심 역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2~3개 분야를 선정해 교육과정 속에서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비 운영학교 교장 314명을 대상으

로 언어·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는 학교현장에 어울림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적용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장이 간접적으로 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현장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학교 폭력 예방 뿐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3일 도내 고, 2학년 대상

도교육청,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부스 운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진로진학상담은 사전 신청한 고, 2학년 504명을 대상으로 상담교사 42명이 30분씩 진행하며, 진로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 성적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형 상담이 이뤄졌다.

학생들은 부모님을 동반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카드, 학교생활기록부, 모의고사 성적표를 지참해 보다 밀도 있는 상담을 받았다. 또한 이번 상담을 통해 대학과 학과 선택, 이에 따른 성적 준비, 합격 전략 등 구체적인 자신의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학과 및 대학의 조기 선택에 따른 맞춤형 대입준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번 진로진학상담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사교용 컨설팅 비용절감 등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도내 고교 학생회장 연수 진행

전북지역 고등학교 학생회장 연수가 2~3일 이틀간 부안대명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는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를 근거로 학생들의 자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학생회 운영 및 구성원들과의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학생회장의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인권 옹호관과 학생회장의 대화를 통한 정책 공유 ▲도내 고등학교 학생회장

연합 구성을 통한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에는 학생 자치활동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학생들의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생회의 민주적인 운영 및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